

98.6.11. 평신도를 위한 신학강좌 (다음 회, 6월 25일은 중강)

「신학의 사조」 11: 환경/생명신학(eco-theology)

<12 강좌> 계획 -- 어거스틴에서 포스트-모던까지

- |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1. 어거스틴  | 2. 토미즘       | 3. 종교개혁       |
| 4. 경건주의  | 5. 자유주의      | 6. 근본주의       |
| 7. 신정통주의 | 8. 실존주의(불트만) | 9. 정치신학(몰트만)  |
| 10. 해방신학 | 11. 환경/생명신학  | 12. 포스트-모던 신학 |

I. 지난 시간 요지 -- 남미 해방신학

1. 질문/출발점

기독교의 “구원”과 경제적 빈곤으로부터의 “해방” 과정은 어떤 연관이 있는가?

2. (독일의 “정치신학”은 참회하는 자, 가해자의 신학) 남미의 해방신학은 “해방꾼들(피억압자들 자신)의 신학

3. 해방의 교육학: 프레이리의 “해방 과정으로서의 의식화”

4. 해방의 신학의 기본 개념

(1) 2 해방신학: 가난한 자들의 해방 신학, 기독교 전통신학의 해방

(2) 가난: 저개발의 결과가 아니라, 착취 제도(자본주의/죄악)의 결과.

(3) 신앙= 교리 신봉, 자신의 이해가 아니라 “역사적 예수의 발자취를 따름”

(4) 예수 = 가난한 자 편에선 해방자,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해방자(눅4:18-19)

(5) 죄로부터의 구원==> 가난으로부터의 해방

. 정치적/사회적 차원 -- 제도적 모순, 억압의 현실

. 역사적 차원 -- “사람”이 아닌 자들, 노예, 자신의 역사의 주인공

. 종교적 차원 -- 신과의 단절, 소외, “이웃 속에서 그리스도 발견”

5. 교회 => 두 번 거듭난 자들의 공동체, 미래의 표징 공동체

6. 하느님=“편드는 하느님;” “중립”=이미 죄악의 편이다; “하느님을 아는 것” = “정의의 실천하는 것”; “정의”는 편파적인 것

7. 공헌=새로운 신학 하기, “철저히 아래로부터, 상황에서부터.”

II. “생태계 신학” -- 가능성/책임성?

1. 정의: 생태계 파괴와 기독교의 신학적 사유 방식의 관계 연구 혹은 그 역(逆)

2. 타당성: 생태계 문제는 (1) 기술공학적 과제 +(2) 자연에 대한 인간의 관계 방식, 심리적, 윤리적 과제이다(“deep ecology”)

3. 환경 문제는 신학적 사고 모형의 전환을 요충한다! -- 의견 일치

4. 현주소:

(1) “Taxing Doomsday” -- IRS Doomsday Plan을 가지고 있다:

출처: David Burnham, *A Law Unto Itself: the IRS and the Abuse of Power* (1990)

(2) 엘니뇨, 라니냐의 경험 (그 원인, 아직 모른다).

(3) 1998년. 4월말 타임지:

1년에 6만 sq mi이 없어진다.

20세기 중 가장 더웠던 3년이 1990년에 집중되어 있는데, 그 원인은 아직 모른다.

나무로 만드는 종이는 1966년의 2배를 사용한다.

(4) 미국 남침례회 98 총회, “여인은 남편에 복종하라” 선언

## 1. (신)복음주의적 입장: Loren Wilkinson의 입장

“How Christian Is the Green Agenda?”, 『Christianity Today』, Jan. 93:17-20.

### 1-1. 출발점

1) “환경론자들”의 입장(자연, 지구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의 별, 그 안 모든 피조물들의 생명의 그물을 형성하고 있다. 자연은 “신성하다.”) 비판.

그 전형적 신학자: Matthew Fox, “The Coming of the Cosmic Christ”

원죄론은 오류, 역사적 예수 안의 하느님 계시 절대화는 “그리스도-파시즘”이다. 지구가 살아 있는 일종의 “그리스도”이다.

### 2) 반환경론자들의 입장 비판

1992년. Rio에 있었던 첫 Earth Summit 회의 때, 브라질의 개신교 보수파의 반응. 환경운동은 일종의 “신 시대” 운동이다. 인간의 필요를 무시하고, 자연을 숭배하는 것은 옳지 않다. 이런 입장은 미국의 보수파 기독교인들 속에서도 많이 찾아 볼 수 있다. “인간 중심의 사유” 고집

### 1-2. 환경론의 기원

1961: WCC, New Delhi 회의, Joshep Sittler, “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의 주님이시다”

<반응> “polite indifference”

1962: Rachel Carson, *Silent Spring* (Boston, 1962)

1967: 『Science』 지, 중세사가 Lynn White: “생태계 위기의 뿌리”에서 “기독교는 가장 인간중심주의적 종교이며, 자연을 비신성화시키었으며, 하느님의 궁극적 나라는 지구가 아니라 신과 인간의 나라로 그리고 있으며, 결국 피조물의 남용을 초래하였다”고 비판.

>그러나 70-80년대 중반, 미국의 기독교인들, 환경 문제에 관심 소홀.

환경론은 북반부의 부자 나라의 관심, 남반부의 빈자들은 “인간의 필요”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“자연을 개발”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. 그러다가

1987: 『Our Common Future』라는 UN 보고서가 공표되었다. “지구의 건강과 인간의 복지는 둘이 아니다.”

예: “다메섹 도상의 회심”을 경험하다: 선언회 임원 Paul Thompson,

1990: “Oxford Declaration on Christian Faith and Economics”

지구의 궁극적 주인은 (인간이 아니라) 창조주, 구원자이신 하느님, 우리는 “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제 제도를 찾아야 한다.”

### 1-3. 복음주의자들의 입장

#### 1) 개별적 접근

예, Susan Drake, Earth Summit 모임을 성사시킨 미국무성 상담자. 침례교인.

AuSable Institute, 미시건의 석유 회사, 학자, 연구모임 후원

#### 2) 구체적 신학적 주제들:

- (1) 창조론: 시작의 문제가 아니라, “계속되는 과정”임을 인식해야
- (2) 타락론: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모든 피조물의 “저주”(서로 먹는다)
- (3) 종말론: 대유성지구의 종말을 수용하지 말아야; 종말은 회복이다.
- (4) 인간 위치론: 자연의 지배가 아니라 “창조의 완성”이 특권이다.
- (5) “성서적”이되 “우주적인 그리스도론”

## 2. WCC 노선 (정리, David G. Hollman, A Place in Creation, 1992)

### 2-1. 현재 지구의 환경 문제의 심각성

- 1) 지구 자원의 고갈: 인간들의 사용량을 감당할 수 없다.

2) 생태계의 오염: 순환불가의 지점에 도달

<공기>: 기구의 온난화 -- 지구 주위의 가스층(지구 담요)의 비대화, 오존층 빈약화  
-- 태양의 유해 자외선 차단 역할 중지, 산성비

<물>+<흙>: 쓰레기, 지하자원 고갈, 숲의 소멸

## 2-2. 직접/간접 원인(신학적으로 본)

1) 하느님-사람-그외의 피조물(자연, 동식물) 관계 방식의 이해

특히 계몽주의(인간중심주의 발달), 자연과학, 기술 공학의 진보

2) 개인주의 경제 활동 및 “무한 성장” 신화 신봉, “소비 미덕”의 산업

3) Alternative Visions (접근하고 있는 일반적 견해들)

(1) wholeness and interrelatedness of all creation (만물의 연대성)

(2) it is neither static nor homogeneous. (생명의 다양성의 재발견)

.. Life itself is multi-formal, in diversity, not uni-formity.

(3) 공정한 분배, 지구 자원 충분하다 -- “만나”?

(4) 인류의 “영장”(superiority of the human)론 재고

(5) 창조는 계속되는 역사, 미래는 열려 있다.

(6) 생명의 양태, 경제 방식 등 모든 것들은 여전히 새로운 가능성들을 안고 있다.

<지구의 건강 + 사회 정의 +인류의 공동 복지> 지점으로 가는 경제제도 추구

## 3. 여성이 보는 환경 신학: Eco-feminism

Sallie McFague, Models of God: A Theology for an Ecological, Nuclear Age (1987)

(『세계의 신학』, 97년 봄, 구미정, “생태여성신학의 주요 관점들” 참조)

### 3-1. 전제

. 출발하는 질문 -- 「예수의 몸의 부활, 승천이 특정 개인이 부활하여 다른 세상으로 이동해 간 사건 -- 나는 이것을 믿을 수 없다 -- 이 아니라, 하느님께서 이 세계의 어느 시간 어느 지점에서나 우리에게 “몸으로 현존”하시겠다는 약속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, 하느님과 세계의 관계를 달리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?」

### 3-2. 논제

“은유적으로” 「세계를 신의 몸」으로 볼 수 있다면, 우리는 못생김들의 상호의존, 상호성, 서로 돌보고 책임지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.

. 이것은 “우리 시대”에는 세계를 신(왕)의 ‘통치 영역’으로 생각하는 모델보다 적합하다.

### 3-3. 군주론적 신 이해(Monarchical Model)

1) 유대-기독교는 신을 군주로 이해하는 모델이 주류이다. 고대는 신은 왕, 중세는 신의 전능성 강조, 칼빈은 신의 주권(sovereignty) 강조;

헨델의 “메시아”에도 등장한다: 만왕의 왕, 만주의 주, 우리 주님을 찬양하라!

2) power 승배를 낳았다.

3) 일방적인 benevolence, 복종/희생의 미덕 강조 (구원론도 마찬가지)

\*/ [domination & deceit의 문제, Ruether]

4) 인간이 nothing이 될 때, 신은 all이 된다. 무책임성의 길 열다.

5) 강점=약점

인간의 안심; 힘 가진 자, 지배자=승리자, 복된 자, 다른 피조물, 약자들 지배, 착취  
hominism(배타적 인간주의 anthropocentrism), 수직적 위계질서

6) 신학적 3 오류

- (1) 신=worldless, 신은 세계에서 멀다(신은 세계 없이 돌아간다).
- (2) 신은 인간 세계하고만 직접 관계 갖는다.(신의 총애도 인간에게만 미친다)
- (3) 그런데 인간 세계를 지배와 총애로써 통제한다. 그리고 자연/세계의 지배권

(dominion)을 인간에게 위임하였다.

7) 복음(=non-hierarchical, inclusive)과 상충한다.

8) “성경”이 “하느님의 말씀”이 아니라, “세계”가 “하느님의 몸”이다.

9) 지구 살해 --> 하느님(의 몸) 살해이다! (십자가 처형)

10) 몸에는 눈 혹은 “의식”이라는 특수한 위치/기관이 있다. 인류는 자의식이 있는 유일한 존재로써 우주의 눈이며, “의식” 기관이다. 우주에서 인류가 사라지면, 우주는 눈을 잃거나 의식을 잃는다.

4. 해방신학의 접근: Social ecology

Leonardo Boff, “Social Ecology: Poverty and Misery”(1994) (『세계의 신학』, 97년 겨울호)

4-1. 출발점

“지배와 개발/성장”의 문화는 인간 사회와 자연 환경을 함께 파괴해 왔다.

4-2. 논제

자연주의(환경주의)와 인간중심의 해방신학의 한계를 넘어, 사회적 정의(자유와 평등)와 생태적 정의(생명들 사이의 조화와 균형)를 동시에 추구하는 윤리, 문화를 찾아야 한다.

1) 북반부 부자 나라들의 “자연주의, 환경보존주의”는 자연 착취의 일시적 휴전이며, 그 동안 빈곤과 비극에 처해 있는 남반부의 인간들의 복지를 무시한다.

2) 남반부의 빈자들도 자연 착취 문화에서 예외가 아니다. 예, 고무 나무 채취, 화전민 등

3) 외채 (일부)의 탕감+기술 이전+빈자 나라들의 정부와 기업들은 사회/환경 투자 (필요)

4) 인간은 자연, 생명과의 범연대성 및 특수한 위치에 대한 (평형을 회복, 유지해야 할)책임을 동시에 인정해야 한다. 이에서 벗어난 “죄”이다.

5) 새로운 신학적 세계관이 요청된다.

\*\*\*토의 주제:

1. 전쟁, 경제적/정치적 불공정, 환경 위기: 인간의 죄와 연관이 있는가?

2. 우리는 “불안과 더불어”, “타인들과 더불어” 정직하게 살 기술을 배울 수 있는가?

\*\*\* 지금은 “eco-justice”를 요구하는 시대 ...

(3: 악은 자체 모순되는 힘, 망한다. 그러나 시간이 걸린다. 체제 붕괴가 거의 끝날 때까지는 정상은 그 결과를 느끼지 못한다. 류터).